



접수번호	17571
접수일자	2020. 8. 14
처리과	행정실
공개여부	

위원장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제112차)

1. 회의일시: 2020년 6월 12일(금) 14:00~15:40
 2. 장 소: 상산고등학교 화상회의실
 3. 재적위원: 15명(학부모위원: 7명, 지역위원: 2명, 교원위원: 6명)
 4. 참석위원: 9명(김동욱, 강정화, 김경덕, 이미경, 최규현, 김명환, 박지영, 양승국, 한재원)
 5. 불참위원: 6명(김상진, 나지영, 이정희, 이상곤, 강영준, 한건옥)
- ※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및 예방의학전문의 참석
- 교감(이종훈, 국중학), 행정실장(김연수), 2학년 학부모 대표(정현주), 3학년 학부모 대표(조민경), 예방의학전문의(전북대 권근상 교수)
6. 안 건: 중간고사 이후 외출/외박 관련 협의

7. 회의내용

(간사가 낭독을 한 제111차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내용에 대하여 수정 여부를 묻자 전원
이의 없다 하여 만장일치로 수정 없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함)

담당자 강정화: 이번 회의는 화상회의(Zoom)로 진행됨을 말씀드리며, 위원장님의 개회
선언과 안건의 자문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간략한 인사 말씀을 하다) 15명의 재적위원 중 10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차 학교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중간고사 이후 외출/외박 관련 협의

위원장 김동욱: 안건 1) 중간고사 이후 외출/외박 관련 협의 자문의 건으로 학교 측 설
명이 있겠습니다.

교원위원 김명환(학교장): 지난 제111차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중간고사 종료 시까지 외출
및 외박을 통제하는 것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중간고사가 다음주 화요일
인 6.16.에 종료되는데, 현재 수도권에서는 계속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
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 중간고사 이후 외출 또는 외박에 대해 학부
모님과 논의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학교관계자(교감, 행정실장), 2·3학년 학부모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학교관계자(교감, 행정실장), 2·3학년 학부모 대표와 예방의학전문의(전북대학교 권근상 교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현재 학생과 학부모, 학생들을 관리하는 선생님들까지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수도권에서는 다시 확산이 되고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중간고사 이후 외출, 외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의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2학년 학부모 대표(정현주): 주위 학부모로부터 일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확산세라 외박은 통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 중 수도권 거주자가 많은 편이라 외박 시 집에 오가는 것이 불안하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외출은 허용하되, 외출 시에도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외출을 허용하는게 좋겠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입니다.

교원위원 양승국: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외출, 외박을 통제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3학년 학생들의 경우 개학에서 지금까지 통제가 4주간으로 이어지다 보니 학생들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으로 어떤 학부모님은 통제하는 부분에 대해 오히려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도 수도권 확산으로 외박 통제는 필요하나, 외출만큼은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위원 박지영: 1학년은 부모님과 떨어져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도 전에 중간고사까지 보게 되어 모든 것이 힘들고 불안하며 스트레스 또한 심할 것입니다. 아마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학부모, 학생 역시 외박 통제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지만, 기한도 없이 외출까지 통제한다면 아이들 불만과 스트레스가 더 심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중간고사가 끝나는 화요일이라도 오후까지 외출을 허용했으면 합니다.

교원위원 김명환(학교장):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의견을 종합해 보면 외박은 통제하고 외출은 제한적으로 통제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자사고 외출/외박 운영현황을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현황자료를 화면에 띄워 자세히 설명하다) 따라서 1개월 이상 통제하는 학교는 우리 학교를 포함해 3교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타 자사고 운영현황을 볼 때, 우리 학교를 포함해 기숙 인원이 많은 학교들은 엄격하게 통제를 함으로써 학교를 벗어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외출을 최소한으로 통제하되 그 범위를 정하는 것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위원 김명환(학교장): 그동안 우리 모두가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어 이상 없이 잘 지내고 있으나, 아이들은 스트레스가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와 달리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대응하고자 학교관계자 및 예방의학전문의(전북대 권근상 교수)의 자문을 받아 다음과 같은 시행방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코로나 19 상황 분류 기준(외출/외박 적용 근거)

상황별 관련내용	양호	보통	위험	최악
전국 확진자 1일 평균 (최근 2주)	10 미만	10 이상 50 미만	50 미만	50 이상
확진자 전주 경유	X	X	X	O
전주외 전북지역 확진자 발생 (최근 2주)	X	X	O	O

중간고사 이후 상황별 외출/외박 시행 방안

상황별 관련내용	양호	보통	위험	최악	종식
기조	·외출: 허용 ·외박: 제한적 허용	·외출: 허용 ·외박: 통제	·외출: 특별한 사유 ·외박: 통제	외출 / 외박 전면 통제	일상적 외출 / 외박 회복
외출 시간	16:55~18:15				
토/일	09:00~17:00	12:00~17:00	12:00~15:00		
대상 학년	전학년	1일 1개 학년씩 순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학생		
토/일	전학년	전학년			
외출 가능 지역	전주지역(외지인 많은 지역 제외)	전주지역(외지인 많은 지역 제외)	효자동(신시가지 제외), 삼천동		
외박	부모와 전주지역 동숙시만 허용	금지			
다중밀집시설	출입 금지				
단체 활동(회식)	10인 미만 허용	금지			
수칙준수	수칙 위반시 기숙사 벌점/퇴사 처벌 병행				
학부모님께	최근 2주 방역기관 자제요청 시설 방문하신 분은 학교방문 자제 강력 권고				

위원장 김동욱: 적용기준을 두고 외출 및 외박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제한에 대해 권고하는 것은 어려운지요?

교원위원 김명환(학교장): 유일한 방법은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QR코드를 찍고 입장하도록 되어 있어 어느 정도는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많은 자문을 주고 계신 예방의학전문의 권근상 교수님께서서는 방역 차원에서 이러한 방안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전북대학교수 권근상: 전라북도는 최근 확진자가 없어 안심은 되나, 앞으로도 그럴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코로나19 종식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학교 내 생활이 지금처럼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써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학생들과 타협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국무총리 발표에 따르면 확진자가 한 자리 숫자로 감소하기 전에는 기한 없이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지금과 같이 유지한다고 발표한 만큼 무엇보다도 학생들 인식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원위원 양승국: 평일 저녁(21시 20분~22시까지)에도 간식을 사 먹거나 개인용무를 볼 수 있도록 외출시간을 추가해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위원 김경덕: 학교 밖보다는 안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통제가 우리 아이들 몸 건강을 생각하려다 오히려 마음의 건강을 해칠까봐 더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중간고사 끝나는 날만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외출과 외박 통제가 지속된다면 스트레스가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이들을 위한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도 있다면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교감(국중학): 학교에서도 많은 고심 끝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피자, 라면 등)이라도 판매하여 제공하기 위해 검토하였으나, 대부분이 교내에 반입이 금지되는 품목이라 이러한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위원 강정화: 김경덕 위원의 말씀처럼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으며, 부모 입장에서 그런 아이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 무척이나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큼니다.

3학년 학부모 대표(조만경): 저희 아이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제 마음도 아픕니다. 외출만이라도 허용해주셨으면 하며, 부디 좋은 방향으로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많은 고심 끝에 이러한 방안을 세운 것으로 판단되며, 이 시행방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십시오.(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묻다)
그럼 이 시행방안에 대해 전원 찬성한다고 동의해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나는 말씀 외에 다른 안건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연수: 학교운영위원회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방식, 회의 진행 방법 등에 대해 추후 회의에서 논의하였으면 합니다.

교감 이종훈: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싶은 말씀은 학교운영위원들께서 다른 학부모님들과 소통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우리 모두가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이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견 있으십니까?(참석위원 전원 없다고 대답하다) 제112차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폐회를 선언하다)

작성자: 일반직8급 강 정 화



학부모위원 강 정 화


(서명)

교원위원 박 지 영


(서명)